

2019년 제1차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회의 결과보고

I. 2019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요

- 1) 일 시 : 2019. 2. 27.(수) 13:00 ~ 15:00
- 2) 장 소 : 보건소 5층 식생활정보관
- 3) 참석자 :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 (총 11명)

연번	성명	직위	소속	참석여부
1	윤	운영위원	보건소장	참석
2	문		의약과장	참석
3	박		정신건강팀장	참석
4	이		정신건강팀 주무관	참석
5	이		정신건강팀 주무관	참석
6	김		센터장	참석
7	오		상임팀장	참석
8	한		정신건강관리팀장	참석
9	박		정신건강증진팀장	참석
10	김		정신건강의학과	정신과 전문의
11	현		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 대표 (보호자)	참석

II. 운영회의 내용 및 의견

1) 아동청소년 사업의 필요성 - 김 센터장

- 2018년 유병률 조사 결과
 - 적대적 반항장애 1위이며 TIC 장애 2배 증가하고 부모갈등과 부모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크게 나타남
- 소아기 문제가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아동청소년 시기에 조기개입이 중요함
- 유병률 위험대상 중 15% 만이 전문가 이용해봤으며 학교 현장에서 직접 전문가를 만날 수 있을 때 이용이 증가함
- 센터에서 전문가로서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큽

2) 전차 회의 및 사업 보고

- 사업계획서, 휴가관리, 근로계약, 복무 직원 동의 및 확인 서명 내부결재 완료함
- 취업규칙 중 유급병가 30일에서 60일 조정된 것 운영회의 보고함
- 등록 외 사례 : 부서팀장 및 동담당자 담당하고 있음
- 사례관리 및 상담 실적 보고
 - 대면율 50% 이상 목표 설정함

3) 사업계획

- 2019년 중점 사업방향
 - 중구 특성상 직장인이 많아 센터에서 직장인 상담과 사례관리에 대한 기준과 범위에 대한 계획과 고민 필요함

- 보건소에서는 중구청 2018년 공무원 정신건강검진 후 강북삼성병원과 연계하여 상담실 설치 계획임
- 주간재활 프로그램
 - 기간 연중 진행하며 명확한 재활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보는 것 필요함
 - 대인관계 증진을 위해 타구와 연합하여 친목도모와 경험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음
 - 이용자 가족으로서 대상자들이 신체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 하는 프로그램을 원함
- 정신건강교육 - 영양플러스
 - 센터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우울난임센터 연계하는 건수 보건소와 공유 필요함
- 정신건강행사
 - 중구청 4월 중구민 걷기대회 계획되어 센터 협조 요청함
- 부모강좌
 - 대상자 모집시 올해 초 구청장 학부모간담회에 참여했던 학부모 명단 구에서 확보하여 참여 독려하기로 함
- 자살 유가족 사업
 - 경찰과 자살 유가족 논의할 때 센터 개입 및 상담한 사례위주로 준비하는 것 필요함
- 자살예방지킴이 양성
 - 구에서 안전진단구 평가에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포함되어 센터에서도 적극적인 추진 필요함
 - 센터 직원들 3월 강사양성교육 이수예정이며 자문의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
 - 보건소에서는 약수동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관리소 직원과 주민들에게 공개강좌를 원하는 내용 파악되어 있음

III. 논의 및 결정 사항

- 1) 2019년 특별사업
 - 계획서와 결과보고 보건소에 공유하기로 함
 - 필요시 보건소 통한 학교 가정통신문 공문 발송 협조 요청함
- 2) 신규운영위원 위촉
 - 센터
 - 서울시교육청 과장님 추천하며 본인 수락하여 2분기 운영위원으로 참석하기로 함
 - 보건소
 - 보건소 내부적으로 논의 후 추천하고 센터와 공유하기로 함
- 3) 육아휴직자 관련
 - 육아휴직자, 대체근무자 휴가발생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
 - 육아휴직자 연가보상비 15일 지급하고 5월 30일 휴직 종료 후 복직하기로 본인 동의 확인하여 운영회의에서도 승인함
 - 육아휴직자, 대체근무자 1일 충복 인건비 지급
 - 노무사 검토 결과 근무일 충복 금지 내용 노동관련법에 없어 지급하기로 함
 - 다음 대체인력 채용시 기간 계산 오차 없이 채용 계획 필요함
 - 상임팀장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보고함

4) 병가보고

- 병가자 24일 병가 사용 후 3/11 출근 보고함

5) 사례논의

- 자살 응급 사례

- 원칙적으로 자살시도 및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비협조 또는 연락두절의 경우 본인 동의 없어도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 절차 필요함

- 보호자가 없는 경우 사례

- 자살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서 대면 후 인계를 하는 것이 필요함
 - 대면 인계 없이 퇴원 후 센터에 의뢰하여 지역사회에서 개입의 한계가 있었음
 - 병원과 조율하여 응급성 있는 대상자는 병원에서 대면 인계하고 차트내용 파악하는 것 요청하기로 함
 - 의뢰시점에서 의뢰자가 잘 알고 있으므로 의뢰자의 평가내용 잘 확인해야함
 - 의뢰서 작성시 센터에서 개입시점을 명시화하는 것이 필요함

- 보호자가 있는 경우 사례

- 보호자 협조가 되지 않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때 담임교사 또는 배정받은 중학교 파악하여 추적관찰 필요함
 - 중학교의 경우 보호자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 내에서 1차 평가 상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대상자 평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